

Pool 플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110-803
110-803 Gugi-dong, Jongno-gu, Seoul
T 02 396 4805 F 02 396 9636
www.altpool.org altpool@altpool.org

광화문우체국

요금별납

기타 풀 프로그램

풀스쿨 프로그램

풀스쿨 관련 문의 및 신청 poolschool2010@gmail.com
풀스쿨 블로그 http://poolschool2010.blogspot.com

워크숍 - 비평의 신파술: 근현대미술 텍스트
05. 01 - 07. 03 매주 토 오후 3시 (총 10강)
강사: 김중길 (미술비평가, 경기도미술관 학예연구사)
시각세미나 - 근대적 주체와 사진 아카이브
07. 10 - 08. 07 매주 토 오후 3시 (총 5강)
강사: 이경민 (사진아카이브연구소 연구원)
이론강독 - 자책담: 나의 자책을 즐겨라
09. 04 - 11. 06 매주 토 오후 3시 (총 10강)
강사: 민승기 (경희대 영어학부 겸임교수)
시각세미나 - 송고, 전통, 아시안 고딕
10. 08 - 11. 05 매주 금 오후 7시 (총 5강)
강사: 박찬경 (작가)

수강료

1강: 1만5천원, 세션별 10강: 15만원 / 5강: 7만5천원,
전체30강: 45만원

풀 퍼블릭 프로그램

마실담화 #1

"큐레이터 주은지 Eungie Joo와 함께한
경험 공유의 네트워크 - 구르는 돌처럼"
03. 30. 화 오후 8시

마실담화 #2

"큐레이터 민레이 수 Manray Hsu와 함께한
비공식 담화 - 지식으로 연결되는 네트워크"
05. 04. 화 오후 5시

마실담화 #3

"큐레이터 김성원과 함께한 유유히 핑기기
Relaxed Subversion - 일과 관계 맺기에 대한
또 다른 태도"
05. 23. 일 오후 5시

살롱 - 작업의 화두: 방치된 제안들 Proposals in Stock

05. 18 - 격주 화요일 7시 (총 10회 예정)
풀플(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683-31)
문의 및 신청 project-cp@hotmail.com
프로젝트 카페 http://cafe.naver.com/projectox

각종 기관에서 거절당한 제안서들, 각종 어려움들 때문에
스스로 방치한 아이디어들, 검증 받거나 함께 논의하고 싶은
기획들을 모집합니다. 모든 신청자들은 발표 기회를 얻고,
풀플에서는 다른 신청자들과 손님들이 격의 없는 토론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인원 및 장바사정에 따라
구기동 '탈로' 프로그램 진행 장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향후 풀 퍼블릭 프로그램은 풀 홈페이지 www.altpool.org의
팝업으로 공지됩니다. 수시로 들려주세요!

온라인 풀스팟

"웃 입는게 제일 쉬웠어요" 02:47

데일리코디(작가 인데스) 1000회 돌파기념 패션쇼

"구르는 돌처럼" 02:55

풀 공간 완공 기념 비공식 자축 파티

풀 회원

풀은 미술인들이 주인 되는 미술기반 모델을 지켜가고자
합니다. 풀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행보에 함께 하여주시는
분들 기다리겠습니다

일반회원 (매회 연회비 1만원)

비정기 후원회원 (후원 시점, 금액 자유)

정기 (매달 일정 금액, CMS 이체)

풀 홈페이지에서 회원혜택을 검토하신 후

회원가입신청하시고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풀 회원 관련 문의 및 신청서 접수

poolmembers@altpool.org



2010 pool production

나는 너를 놓지 않는다 I don't let you down

이제 / 이솝
Lee Je / Aesop

2010. 06. 11 금 - 07. 11 일 (31일간)
개막 06. 11 오후 6시 풀
2010. 06. 11 Fri. - 07. 11 Sun. (31days)
Opening 11th June, 6 pm

이번 전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시각예술창작지원 및
전시공간지원사업 기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The exhibition is supported by the Arts Council Korea.

Arts Council Korea

Pool
플

<나는 너를 놓지 않는다> 전시 설치장면, 2010, 사진: 김상돈 © 풀, 서울
I Don't Let You Down, exhibition installation view, 2010, Photo: Sangdon Kim © art space pool, Seoul
cover 작가 이제&이솝, 2010, 사진: 김상돈 Artists Lee Je & Aesop, 2010, Photo: Sangdon Kim



우리 미술계의 규모와 외관이 자칫 풍성해 지는 듯 보이는 시절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분주한 스펙터클 한 켠에는 창작인들의 대인, 지역간 만남이 일상화 되면서 과연 우리가 왜 이리 분주하고 떠들썩한지, 우리 미술이 돌진해 가는 방향과 역동성의 정체는 무엇인지 하는 자괴감 어린 질문이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역사에 대한 책임, 우리 미술의 정체성, 나아가 우리 미술의 발전 등의 대의가 체감될 여유가 없는 일상을 경험하면서, 풀은 다양한 개개인이 사적 영역에서 벌이는 일상의 시투를 우리 미술의 역사와 정체성이 발굴되는 치열한 현장으로 주목합니다.

풀이 초대한 이제, 이슴 두 작가는 예민한 소재나 거창한 화두, 기발한 방법론에 기대지 않고 작가의 삶과 주변 현실의 야성 그대로를 직면하기 시작한 이시대 말에서 삼십대 초반의 창작 주제들입니다. 몇 차례 국내 전시 활동을 통해 개별적 “스타일”을 형성하기 시작한 두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어쩌면 평생 지속될 일상과의 조우를 향한 신중하고 과감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순간순간 일몰하는 동네 풍경과 일하는 사람들을 결눈질로 훑기 보듯 포착하여 재빠른 붓질로 잡아내는 회화작업을 해왔던 작가 이제(1979년 생, 서울)는 “대책 없이 되풀이되는 불안, 무기력함, 피곤함, 상실감 자체를 선명하게 구체화하고 마주하기”로 마음먹고 이번 새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황폐와 신기루가 각축하는 거대한 실재로서의 초현실 환경을 한낱 개인인 우리는 어떻게 대면하고 그것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초현실적이지만 엄연한 실재들이 다층적으로 산재한 화면 한 가운데 작가는 그 현실을 결코 놓지 않으려는 담대한 개별 주제들의 “액션”을 담습니다. 그것이 위대한 실패와 허튼 허벅기가 된다 해도 작가는 이러한 개개인의 힘찬 서사와 화사한 상징, 강인한 역동성을 결코 놓지 않을 것입니다.

원형적 기능과 상호 관계를 기호화한 개념적 예배당, 여행사, 의자, 집 등으로 가상 텍스트를 만드는 종이 조형물 작업을 해왔던 이슴(1982년 생, 서울)은 이번 신작에서 보다 집요하고 구축적인 방식으로 개체들의 복잡한 관계양상을 서술합니다. “개체들의 관계 맺음에서 생성된 오류와 환상의 과도한 성장” 속에서 작가는 개체들이 과장되게 증폭되기도 하고 상이한 질서로 묶이기도 하는 순환구조를 직시합니다. 비록 위태롭고 가해적인 관계 질서라 해도 작가는 도피하지 않고 그 절망과 상흔이 변이해 가는 윤곽을 짚어갑니다. 이슴 작품에서 드러나는 구상과 추상, 평면과 덩어리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담대한 구성, 허술한 듯 연결되는 조각의 견고함, 서사와 형상, 재료를 과감히 과장, 생략하고 절단하며 덧붙이는 수행성, 그리고 설치 시점까지 이어지는 공간 맥락과의 조형적 재구성 등은 자칫 맹랑콜리한 자동기술 서사와 사적 유희 등으로 오인되곤 하였던 작가이슴에 대한 해석을 재고하게 하여줍니다.

풀은 현실과의 대면을 놓지 않으려는 두 작가의 용기를 주목합니다. 또한 일상의 여유와 나태를 혼동하지 않으려는 개별 주제들의 긴장을 격려합니다. 관계맺기와 순정, 온정을 혼동하지 않으려는 객관성, 니힐리즘과 파해의식을 견어낸 유희함, 공공성과 영웅주의를 구별하는 대담함을 두 작가에게서 만납니다.

풀, 김희진

번역: 권진 사진: 김성돈

글 커미션(전시 개관 후 발표): “이제/이슴 작가연구”, 문명인(미국 알래스타 매사추세츠 대학 미술사 조교수, 미술비평, 작가)

It is assumed that the art world has arrived at the time of plenty in size and appearance.

On the other side of the bustling and spectacular scenery, there are questions arising above the babel: why is it so special about the ordinary encounters between individual artists and regional groups, how do we define the identity of this dynamic flow and where we are dashing through. In the exhibition pool takes its attention to the fever of everyday life allies to the history and identity of artistic activity buried in private sphere; the daily struggle while missing one's cause for responsibility, sensation and development about history, identification and current art.

As the emerging artists who are aged roughly 30s have just begun their chance on the nature of life and surrounding realities, Lee Je & Aesop do not reside in sensitive issues, prodigious subjects and special creative methods. By experiencing a few numbers of local exhibitions, two artists have shaped their own 'style'. It is no coincidence that this exhibition will mark as the first cautious and bold step toward their life-long explorations and daily struggles.

Lee Je(b. 1979, Seoul) has featured series of landscapes of local scenery as she glances at them which are captured by her quick brush strokes on canvases. For this time, she has developed her cognition on "facing and embodying of the repetitive uneasiness, tameness, exhaustion and a sense of loss." A painter of surreal time, Lee Je questions on how she would cross with the surroundings as an enormous realm by being an individual. Her works claim on the 'action' of bold individual subjects who try not to leave the reality upon the scattered and multiple layers of surreal but solemn realities. Although her trial could be ended as a grand failure or absurd tragicomedy, she wouldn't let it down in the return to the energetic narrative, the vivid metaphors and the individual strength.

Aesop(b. 1982, Seoul) has created unique paper sculptures conceptual models of church, travel agency, chair and house for imaginary text, of which symbolize fundamental functions and interrelationship of original existences. Her new works shift to the place in multiple complexity of entity with her tenacious way of building construction. In the 'growth of errors and fantasies to interconnect entity,' the artist directly gets down to a structure of the circulation in which entities are exaggerated and at times revealed by an awkward discipline. This awkward discipline of relationship is insecure and assaulting, but she keeps contouring the transmutation of yearning rather than escaping from it. In the past Aesop has commonly understood as a melancholic artist who works with narratives built by automatic writing and with personal playfulness. Throughout the continuous search for finding new practice performativity, she has built a bold expression between abstraction and constructivity, between surface and mass, between roughness and solidity, between narrative and figuration, between exaggeration and omission and between addition and deleting, which are all developed within the consideration of the spatial context for displaying.

The exhibition is a merging of pool's remarks commitments facing reality. Two compelling artists encourage the way we try our best to hold the tension in every breath rather than confusing relaxation with laziness. The works on display represent the objectivity that does not mistake compassion for making relations, the exhilaration that fixes nihilism and victim mentality and the boldness that differentiates publicness from heroism.

Heejin Kim, Director, art space pool

이제 Lee Je

나는 현실을 훑기 보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다. 싸우기 싫어서 점잖을 빼다 보면 태도가 성숙하다고 칭찬받을 정도이다. 그랬던 내가 최근 몇 년 동안 상실이라는 것에 연결되는 감정을 자주 온몸으로 느껴왔다. 양극을 오가는 불안한 감정상태와 대책 없이 무기력한 육체가 되풀이 되고 있던 어느 날, 이 피곤함을 조금이라도 구체화시키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흐느적 거림에도 계속 따라가면 불현듯 상실이란 것이 아주 선명하게 나와 마주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 그렇게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면 그 동안 늘 어려웠던 '까놓고 얘기하거나 화내고 싸우고 포용하고 용서하기'들을 할 수 있으리라는 바람으로 작업하였다. 요즘은 막연하기만 했던 상실감이나 고독 혹은 쓸쓸함이 조금은 익숙하고 조금은 만만하다.

I am habituated to see the reality at a glance. By playing a decent attitude, I've avoided struggles and often praised for the behavior. In recent few years, I, with such behavior, have absorbed a sense of loss and related feelings both physically and spiritually. After passing through the unstable affections in both sides of extremes and having repetitious physical hardness, I have decided to embody the whole tiredness. While holding the endless sway, I hoped to face a clearer sense of loss at the end of the road. If I can cross with it, I might be able to finally 'speak frankly, get angry, struggle, embrace and forgive'. A little bit more familiar and distinctive, I can accept a sense of loss and loneliness now.

이제 Lee Je

2004 국민대학교 대학원 회화과 졸업 MFA Fine Art, Kukmin University, Seoul

개인전

2009 꽃배달, 갤러리킹, 서울 FLOWER DELIVERY, Gallery King, Seoul

2005 우리의 찬란한 순간들, 조흥갤러리, 서울 OUR DAZZLING MOMENT, Joheung Gallery, Seoul

2006 풍경의 시작, 갤러리플랫폼, 서울 THE SCENERY BEGINS, Gallery Platform, Seoul

주요 단체전

2010 Ordinary Days, PKM Trinity Gallery, 서울 ORDINARY DAYS, PKM Trinity Gallery, Seoul

2009 원더풀 픽처스, 일민미술관, 서울 WONDERFUL PICTURES, Ilmin Museum of Art, Seoul

2008 100년의 여행, 여성사전시관, 서울 A JOURNEY FOR 100 YEARS, Women's History Exhibition Hall, Seoul

2007 도시행방, 신한갤러리, 서울 TRACES OF CITY, Shinhan Gallery, Seoul

도시의 힘, 진흥아트홀, 서울 POWER OF CITY, Jinheung Arts Hall, Seoul

2006 친숙해서 낯선 풍경, 아르코미술관, 서울

FAMILIAR OR UNORDINARY LANDSCAPE, Arko Art Center of the Arts Council Korea, Seoul

장면들-도시회화, 한전프라자갤러리, 서울 SCENES - CITY LANDSCAPE, Kepco Plaza Gallery, Seoul

2005 그인에 늙다, 조흥갤러리, 서울 LAYING IN THERE, Joheung Gallery, Seoul

사극선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관, 서울

DECLARING EMERGENCY OF THE TIMES, Movement for Democracy Center, Seoul



이제, 너의 노래, 자혜, 2010, 캔버스에 유화, 150x200cm
Lee Je, 'Your song, Jihye', 2010, oil on canvas, 150x200cm



이제, 섬의 가능성2, 2010, 캔버스에 유화, 90.9x72.7cm
Lee Je, Possibility of island, 2010, oil on canvas, 90.9x72.7cm

이슴 Aesop

나의 작업은 대상들의 관계 맺음에서 생성된 오류와 본질의 과도한 성장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즉, 관계체들의 불투명한 교섭이 환상의 변이를 낳았고 그것은 과대망상과 애증으로 변질되어 실재보다 환영의 모습으로 사유되었다고 본다. 실체가 서있을 자리보다 가상과 이상으로 비만해진 이 시대는 몽환으로 사유하는 시대이다. 나의 이번 조각은 개인의 환상과 구성원의 내적 속성의 위태로움을 서술한 조각이다. 대상들의 관계 맺음은 상이한 질서로 묶이기도 하고 대상들의 환영으로 그로테스크하게 증폭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서로가 욕망으로, 내면세계로의 도피로, 꿈의 재생산 등으로 연결되는 순환구조를 가진다. 그것이 무엇인건 나는 개체가 갖은 환상의 크기를 증폭시킴으로써 세계가 지어올린 거대한 담론, 허블허블한 몽상과 변이의 윤곽을 만들고 싶다. 그렇게 시대의 몽상을 짊음으로써 우리 삶의 정신적 잠재력을 발견하는 것에 주목한다.

My work is originated from my interests on finding the error that is occurred by the relationship between objects and overload of essence. The uncertain negotiation between relational bodies often fantasy, transmuted into delusion, love and hatred and speculated as an illusion rather than the real. We are living in the time of dream overblown by virtuality and ideals which are all intercepting the place where reality was standing. In this exhibition my works narrate about individual illusions and dangerousness of inner characteristics. Making relationship between objects is tied by different disciplines and amplified by the grotesque illusion. After all, a structure of the circulation connects each other by desires, escapes to the inner world and reproduction of dreams. No matter what it is, however, through amplified fantasy of individual entity I'd like to contour the grand narrative what I see in this world where is flopping with dreams and transmutating. By pointing such dreams of this time, I pay attention discovering the spiritual potentiality of our life.

이슴 Aesop

개인전

2006 하늘을 향하는 집, 대안공간 미술, 서울 HOUSE FOR SKY, alternative space miclle, Seoul

주요 단체전

2008 동심,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서울 CHILDLIKE, Ewha Womans University Museum, Seoul

2007 열전, 인사미술공간, 서울 YEOL 10, Insa Art Space, Seoul

막긋기, 소미미술관, 서울 DRAWN TO DRAWING, SOMA Museum, Seoul

2006 새롭다 만들기, 대안공간 풀, 서울 CREATING A NEW FOLDER, alternative space pool, seoul



이슴, 회자의 웃음, 2008, 석고, 목재, 실, 가변크기
Aesop, Laughter of the Gangrene, 2008, plaster, woods and thread, dimensions variable



이슴, 상실의 시대(부분), 2010, 레진, 스티로폼, 박제, 가변크기
Aesop, 'The age of loss'(part), 2010, resin, styrofoam, stuffing, dimensions variable